

정의로운 은재

강경수, 오하림, 전성현, 진형민, 최나미, 황선미 글 | 모예진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학년 및 단원:

5, 6학년 국어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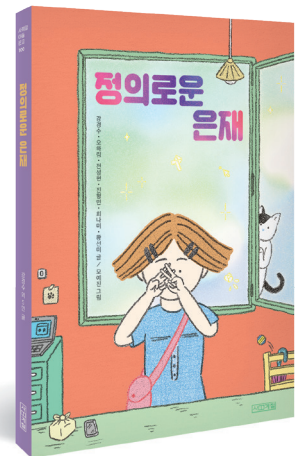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주제어: #정의 #공평 #연대 #용기 #자율 #판타지 #바이러스 #소통 #세대갈등 #인간성

분야: 한국 창작동화, 단편 동화, 판타지 동화

활용: 질문수업(하브루타), 교육연극, 토의·토론

작성: 창원 전안초등학교 박정운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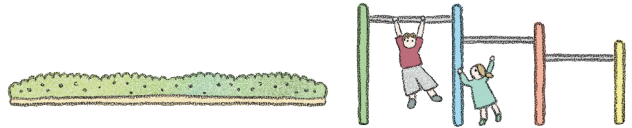


■ 활동 목표

-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문장을 찾고 떠오르는 질문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다.
- 책을 읽고 내가 만약 등장인물이라면 어땠는지 생각해 보고, 뒷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 단편 동화를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 지도안 작성 의도

『정의로운 은재』에는 여섯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깊이 있는 작품들이 담겨 있다. 모든 작품이 가볍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신선하다. 활동과 표현 위주의 독후 활동보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 책을 깊이 읽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교안에 제시한 질문은 예시일 뿐이며 읽는 사람에 따라 질문의 방향과 그 깊이는 달라진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와 하고 싶은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던 단편 「정의로운 은재」를 중심으로 교안을 작성하였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8차시
읽기 전	책과 인사하기 - 표지 살펴보기 - 작가 소개 읽기 - 여는 글 읽기 - 차례와 뒤표지 살펴보며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목독하기 - 인상 깊은 글귀 줄 긋거나 메모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문장 옮겨 쓰기	2차시
	단편 고르기 -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단편과 그 이유 말하기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단편 고르기 함께 읽기 -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2차시

단계	활동 내용	총 8차시
읽은 후	<p>★ 선택 활동</p> <p>「정의로운 은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떠오르는 질문 나누기 질문 고르고 함께 이야기하기 만약에 나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기 내가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어질 뒷이야기를 상상하기 그날의 일기 쓰기 <p>「그날 밤, 홍이와 길동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공통 패러디 된 부분 찾기 인물 탐구 국어사전에서 단어 뜻 찾아보기 <p>「골목이 열리는 순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공통 즉흥극 하기 <p>「살아 있는 맛」</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공통 몸으로 표현하기 <p>「손톱 끝만큼의 이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공통 핫시팅 <p>「바이, 바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공통 소년의 사연 소중한 일상 전시회 <p>★ 공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책 소개하기 에세이 쓰기 	선택 활동별 3차시

읽기 전

● 책과 인사하기

1. 표지 살펴보기

글쓴이, 그림이, 출판사, 앞표지 그림을 살펴보며 첫 느낌, 떠오르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2. 작가 소개 읽기

이 책은 여섯 명의 작가가 참여한 단편 동화집이다. 강경수, 오하림, 전성현 진형민, 최나미, 황선미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 본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 나눈다.

3. 여는 글 읽기

『정의로운 은재』는 사계절출판사의 사계절아동문고 100번째 기념 작품집이다. 여는 글을 읽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내일을 가늠해 보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기획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여는 글을 읽고, 코로나19를 겪으며 바뀐 일상의 변화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4. 차례 살펴보며 내용 예상하기

차례에 실린 단편 동화의 제목과 삽화를 살펴보며 어떤 내용의 작품인지 예상해 본다. 뒤표지에 실려 있는 각 작품 속 한 문장도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된다.

읽는 중

1. 묵독하기

수업 시간 중에 소리 내지 않고 읽는다. 인상 깊은 글귀에 줄을 긋거나 특히 마음이 머무르는 문장은 따로 메모한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인상 깊은 문장을 써 두면,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눌 때 도움이 된다.

2. 함께 읽기

고른 단편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읽어 본다.

읽은 후

1. 단편 고르기

각자 책을 다 읽은 다음,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단편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한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고 싶은 단편을 고를 수도 있다.

선생님께 읽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달라 서로 다른 단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궁금한 것이 많이 떠올랐던 작품, 가장 공감이 가는 이야기, 내 경험이 떠올랐던 이야기 등 대화 주제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작품을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함께 읽기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소리 내어 함께 책을 읽는다.

선생님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모둠과 모둠으로 번갈아 읽기를 할 수도 있고, 짝끼리 또는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읽을 분량은 한 문장, 한 문단,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읽고 싶은 만큼 등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많은 글은 역할을 정해 읽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지루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마음이 머물렀던 곳, 궁금했던 것을 떠올려 질문을 쓴다. 서로의 질문을 듣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질문을 골라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자.

내가 고른 작품	「정의로운 은재」
인상적인 문장 (쪽)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아이예요.”(30쪽)
내가 만든 질문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사람일까?
함께 만든 질문	실수도 나쁜 행동일까?
내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결과가 나쁘다면, 실수라고 생각한다. 실수와 나쁜 행동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의 생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잘 모르고 저질렀다 해도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실수였더라도 나쁜 행동이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선생님께 교사가 질문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함께 읽기를 하는 중간에 한 번씩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 만들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짝활동으로 서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한 뒤 함께 질문을 만들거나, 서로의 질문 만들기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막막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예시 질문을 보여 줄 수도 있고 학생들의 질문을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브루타 질문 수업에 익숙한 선생님과 학생이라면 일반적인 네 단계 질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종류	질문의 내용	(예시) 「정의로운 은재」
사실 질문 (내용 질문)	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정답이 있다.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 모임은 어떤 일을 하나요?
상상 질문	글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하고 연상하는 사고의 시간으로 다양한 해답을 찾는다.	정의의 양동이 벌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까?
실천 질문 (적용 질문)	글 내용을 지금 내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주변에 정의의 양동이를 주고 싶은 아이가 있는가?
종합 질문 (메타 질문)	글 내용에 대해 평가, 판단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생각을 일깨우고 가치를 인식하게 돕는 질문이다.	정의의 양동이는 벌을 주는 행동일까 아니면 일상의 불의를 막는 쪽일까?

「정의로운 은재」 #정의 #공평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1) 50페이지짜리 계약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둘은 이 이상한 능력을 얻기 전에 먼저 메신저로 계약서를 받았다. 장장 50페이지짜리 계약서에는 어떤 상황에 양동이를 쓸 수 있는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13쪽)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아이예요.”

(중략)

그래서 은재는 단톡방에 들어가 왜 어른들에게는 양동이를 쓸 수 없냐고 물었다.

어른들은 낮가죽이 두꺼워서 안 통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제가 알기론.....같은 잘못도 어른이 하는 건 실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맞아요. 잘못된 어른은 법이 해결하고, 우리는 양동이로 해결하고. (30쪽)

2) 투명 양동이가 아이들에게만 통하는 이유는 뭘까? 어른들에게는 왜 양동이를 쓸 수 없을까?

3)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아이일까?

“바다야, 작년에 입던 바지를 잘못 입은 거 아냐?”

은재의 농담에 바다는 웃지 않았다. 바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옆에 있던 아이들은 은재를 힐끗 보더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은재는 의도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을 깨달았다.

“어? 아니,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당황한 은재가 더듬거렸다. 마침 화장실에 다녀온 승연이가 모퉁이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중략)

‘실수였어!’

은재가 눈으로 외쳤다. 승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35~36쪽)

4) 은재가 바다에게 한 농담은 실수일까, 잘못(나쁜 행동)일까?

5) 실수와 잘못의 차이점은 뭘까?

6) 투명 양동이를 뒤집어쓴 은재의 기분과 마음은 어떨까? 반성하고 후회했을까? 아니면 제 마음을 몰라 준 승연이가 야속했을까?

은재보다 더 못된 아이들이 널렸는데 그 애들과 은재가 똑같이 찬물을 맞는다고? 더구나 은재 말은 들어 보지도 않고? 이제 보니 양동이도 불공평하기 짝이 없네! 은재는 질끈 눈을 감았다. (38쪽)

7) 은재가 정의의 양동이벌을 받은 건 공평한 일일까, 불공평한 일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 보자.

2. 만약에 나라면

만약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보자.

1) 내가 만약 태명 언니로부터 ‘양동으로 찬물을 끼얹는 모임’에 가입하겠냐는 제안을 받는다면,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2) 은재가 “바다야, 작년에 입던 바지를 잘못 입은 거 아냐?”라고 말하자 승연이는 은재에게 정의의 양동이 벌을 준다. 내가 만약 승연이라도 은재에게 그렇게 했을까?

3) 내가 만약 양동이 회원이라면 정의로움, 공정하게 벌을 줄 수 있을까?

4) 나에게 나쁜 아이를 벌주는 힘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이 좋을까?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주의점, 제한점은 무엇일까?

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악의를 담은 행동 또는 말, 흠치거나 부수거나 망가뜨리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13쪽)

다른 사람을 밀치면서 위협하는 아이, 악담하는 아이, 시비 거는 아이……. (23쪽)

우선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애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름, 가족, 입는 옷, 말투……어휴, 별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트집을 잡는 애들이 있었다. 야한 단어를 크게 외치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희롱하지 않나, 남의 물건을 빼앗아 가서 일부러 더럽히기도 했다. 이쪽에선 따돌리고 저쪽에선 인간질했다. 선생님 말씀은 또 어찌나 안 듣는지! 아, 그리고 보니 도둑질도 한 번 막은 적이 있었다. (29쪽)

5) 위의 행동 중 하나를 내가 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에게 이런 행동 중 하나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어떤 행동을 처벌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3. 뒷이야기 상상하기

이야기의 흐름과 등장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자.

뒷이야기를 상상할 때 도움이 되는 질문

- 정의의 양동이 벌을 받은 뒤 은재는 승연이에게 뭐라고 말할까 또는 어떻게 행동할까?
- 정의의 양동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은재는 정의의 양동이 회원을 계속할까?
- 은재와 승연이는 계속 단짝으로 지낼 수 있을까?

4. 그날의 일기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바다의 생일에 있었던 일을 일기로 표현해 보자. 먼저 질문을 통해 승연, 바다, 은재의 기분을 짐작해 보자. 세 등장인물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인물을 선택하여 나라면 어땠을지 그날의 일기를 써 보자.

등장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질문

- 은재가 바다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켜보는 승연이의 기분은 어땠을까? 은재에게 정의의 양동이 벌을 줄 때 마음속 갈등은 없었을까?
- 은재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다의 기분은 어땠을까? 승연이가 은재에게 정의의 양동이 벌을 주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바다의 기분은 어땠을까?
- 은재는 바다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바다의 기분이 어떨지 미리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승연이가 정의의 양동이 벌을 주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날 밤, 흥이와 길동이」 #연대 #용기 #자율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엄마는 그저께 수수팥떡을 꼭꼭 뭉쳐 흥이 입에 넣어 주며 말했어. 이게 마지막 생일 떡이라고. (중략) 열 살을 꼭 채워서 더는 붉은 떡이 필요 없구나. 귀신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구나. (42쪽)

1) 생일에 수수팥떡을 먹는 이유는 뭘까?

2) 사슴이 흥이 엄마에게 진 빚은 무엇일까?

3) 길동이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을까? 길동이 아버지는 왜 번번이 아무 잘못도 없는 길동이를 광에 가두고 못살게 구는 걸까?

2. 만약에 나라면

흥이는 하늘 나라로 함께 떠나자는 엄마의 제안에 길동이가 없는 하늘 나라에는 안 간다고 말하고는 길동이를 만나러 간다.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할까?

3. 뒷이야기 상상하기

앞으로 흥이, 길동이, 사슴, 호랑이는 서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주인공을 한 명 정해 뒷이야기를 써 보자.

.....

.....

.....

.....

4. 패러디 된 부분 찾기

어떤 작품의 소재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패러디(parody)라고 한다. 이 단편 동화를 읽으며 떠올랐던 옛이야기나 등장인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패러디 된 것인지 짝 또는 모둠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자.

떠오른 옛이야기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	패러디 된 부분
선녀와 나무꾼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감	자식을 두고 혼자 하늘 나라로 떠나는 엄마, 엄마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자식
떡할머니와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라고 말하는 호랑이	떡 장사를 하겠다고 따라나서는 호랑이

5. 등장인물 탐구하기

1) 등장인물이 했던 말과 행동을 단서로 성격을 짐작해 보자.

등장인물	말이나 행동, 생각	성격
홍이		당차다. 자율적이다. 독립적이다
사슴		
호랑이		
길동이		

2) 집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는 홍이와 길동이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자.

6. 사전에서 어려운 낱말의 뜻 찾아보기

책을 읽을 때 낯선 어휘, 어려운 낱말이 있더라도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뜻을 짐작하여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책을 읽으며 어려웠던 낱말이 있다면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내가 짐작했던 뜻이 맞는지 살펴보자.

어려운 낱말	쪽	뜻	짧은 글짓기
장마당			
혼사			
해코지			
고시랑고시랑			
광			
옹골차다			
미덥지 않다			
패대기			
허깨비			
장꾼			

★ 선택 활동

「골목이 열리는 순간」 #판타지 #이야기의힘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1) 두 발로 걷고 빨간 가방을 멘 고양이의 정체는 누구일까? 할머니가 본 '조끼 같은 걸 입은 핑이'는 리나가 본 그 고양이일까?
- 2) 조완 작가의 이름 '조작'과 '정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 3) 리나는 왜 혼자 노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을까?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노는지 이야기 해 보자.
- 4) 리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이사를 자주 다니면 친구를 사귀기 힘들까?
- 5) 리나가 <아름다운 가면 27편>을 읽은 아이가 단 하나라도 있기를 바란 이유는 무엇일까?
- 6) 쪽지에 적힌 '27편은 사라진 게 아냐. 넌 이미 이야기 속에 있어.'는 무슨 뜻일까?

2. 만약에 나라면

“아빠가 주신 거 아냐. 그냥 쪽지를 받았어. 아빠는 네가 넘어진 걸 봤을 뿐이고.” (87쪽)

“안 믿겠지만, 고양이가 왔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알아. 하지만 진짜야. 처음 보는 고양이였는데, 쪽지를 주고 사라졌어. 27편이 궁금하면 이렇게 하라고.” (88쪽)

- 1) 명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명제가 되어 명제에게 있었던 일을 짐작해 보자.

3. 뒷이야기 상상해서 쓰기

167쪽에 실린 작가의 말을 읽어 보면, ‘사람의 세상에 동물이 얽혀 사는 게 아니라 동물과 우리가 나란하 사는 이야기, 우리가 다만 동물의 말을 몰라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동물이 보기에는 참 우스울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작가는 가방을 메고 조끼를 입은 고양이를 등장시킨 것 같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시계 토끼가 떠오르기도 한다.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 또는 조끼 입은 고양이를 실마리로 삼아, 뒷이야기를 써 보자.

4. 즉흥극 하기

짝과 함께 표현해 보고 싶은 부분을 찾아 즉흥극을 해 보자.

선생님께 학생들이 즉흥극을 할 만한 장면을 찾기 어려웠다면, 대화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예시로 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나 집 앞에서 리나와 명제가 대화하는 장면, 반찬 가게 앞에서 리나와 엄마가 대화하는 장면, 계단 앞에서 앞집 할머니와 리나가 대화하는 장면 등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을 위주로 골라, 가상의 지문과 대사를 넣어 대본을 만드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맛」 #SF #바이러스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1) 민준이의 형 민우는 어디에 있을까?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형은 집으로 돌아올까?

2) 제목 「살아 있는 맛」은 무슨 의미일까?

선생님께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우리에게 갇힌 동물들의 상황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답 찾기를 어려워한다면 본문 114쪽 독백 ‘사람들이 동물들을 우리에게 가두니 거꾸로 동물들이 사람들을 집에 가둔 것 같았다. 이제 사람들도 살아 있는 맛이 날까?’를 함께 되짚어 볼 수도 있습니다.

3) 민준이네 가족이나 반에서 생긴 일들을 되짚어 보자. 신종 바이러스 소식이 전해지고, 그 매개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나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다른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

5) 내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는 편리하고 아름다운가?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하면 바이러스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6) 민준이네 엄마는 ‘유기농 사료를 먹인 닭이지만 혹시 또 모른다’며 닭볶음탕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다. 가까운 미래 사회에 안전한 먹거리가 사라질 경우,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뒷이야기 상상해서 쓰기

이어질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 보자.

3. 몸으로 표현하기

신종 바이러스로 집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서로를 경계하며 갈등한다. 그런 심리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찾아보고, 그때 느껴지는 기분과 감정을 이야기해 보자. 상황을 설정하고 무언극으로 표현해 보자.

등장인물	기분, 감정
밖은 위험해서 장을 보러 가지 못한다는 아줌마	걱정
배달 음식에 대부분 돼지고기, 소고기가 들어가서 시켜 먹지 못한다는 아줌마	의심
시끄럽게 우는 아이들 소리	짜증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집 안에서 뛰어다님	답답함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할아버지	분노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하는 옆집 아줌마	두려움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1) 주홍이 할머니는 왜 집회에 나가는 걸까? 집회에서 무엇을 주장할까?
- 2) 주홍이 아빠는 왜 할머니가 집회에 참여하는 걸 막으려고 할까?
- 3) 평소 잘 이해할 수 없던 어른들의 행동이나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
- 4) 잘 소통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본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해 보자.
- 5) 이 이야기 속에서처럼 나와 가까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 6) 주홍이 아빠는 자신이 할머니의 보호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빠는 할머니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할머니가 방을 뒤흔다.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빈 할머니를 찾아가기도 하고, 주홍이에게 할머니를 지켜보라고 시키기도 한다. 아빠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자.
- 7) 어떤 가족이 더 좋을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공손하지만 재미는 다소 없는 가족? 재미는 있지만 유별나게 허물이 없이 시끌벅적한 가족?

2. 만약에 나라면

내가 주홍이라면 갈등을 겪고 있는 할머니와 아빠를 볼 때 기분이 어떨까? 주홍이가 되어 할머니와 아빠, 엄마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써 보자.

3. 핫시팅

아빠, 할머니, 엄마, 정빈이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등장인물을 초대해 인터뷰를 해 보자.

등장인물	궁금한 점 또는 해 주고 싶은 말
아빠	
할머니	
엄마	
정빈	

「바이, 바이」 #인간성 #일상의 아름다움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1) 떨어지는 의식 속에서 소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 2) 자신이 좀비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소년은 기분이 어땠을까?

2. 뒷이야기 상상해서 이어쓰기

좀비 소년과 볼트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며 뒷이야기를 써 보자.

3. 소년의 사연

좀비가 되기 전에 소년은 어떤 아이였을까? 소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소년의 사연을 상상해서 써 보자.

4. 소중한 일상 전시회

코로나19 때문에 깨달은 나의 일상 속 소중한 순간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리며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와서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우리는 왜 일상의 소중함, 자연의 아름다움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지 그 까닭도 이야기해 보자.

★ 공통 활동

1. 책 소개하기

단편 중 한 편을 선택하여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 글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추천하는 글이나 별점, 인상 깊은 문장도 넣어 보자.



선생님께 책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소개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책표지를 디자인하거나 포스터 형식의 소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개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에세이 쓰기

한 권의 책을 함께 깊이 읽으며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써 보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즐겁게 참여한 활동을 떠올리며 써 보자.